

[2006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大賞]

○○쌀 · ○○고추... 특산품 신명품시대 연다

우수특산품 6개부문 57개 선정
웰빙·로하스 트렌드에 맞는 새상품 높은 점수
소비자 만족도 높이고 생산자도 고수익 올려



농산물의 전반적인 공급과잉 기조와 대형 유통업체의 확산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농산물시장에서도 상품차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출범하여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불가피해진 현실을 감안할 때 농산물도 적극적인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산지의 생산자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정확한 품질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최근엔 유통시장의 구조와 소비행태의 변화로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웰빙, 로하스 열풍이 불면서 좀 더 나은 질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우수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투자 및 용자 등 형태로 7조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브랜드는 지난 2004년 말 5천428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면서 대부분 브랜드가 이름표 역할만 할 뿐 소비자의 농산물 선택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쳤다. 농림부는 산지유통센터(APC) 건립, 가공시설 현대화, 공동 브랜드화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돼지 등 브랜드는 80개 정도만 집중 육성하고 주요 과일인 사과, 배, 단감, 감귤의 50%가 2010년까지 국내 연합브랜드인 '썬플러스'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쌀은 등급을 판정하고 브랜드를 인증해주는 쌀 품질검정(인증)

기관을 2008년 설립,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원예, 축산 분야는 우수 브랜드의 점유물량이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브랜드가 자리를 잡으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자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지역의 특산품은 그 지방의 얼굴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산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풍습 등이 집약된 제품이다. 이러한 우수특산품은 각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역내 유희 노동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각 지역 특산품의 우수성을 지면을 통해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 대한민국 특산품 대상’ 선정 행사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특산품 대상 선정위원회는 농축산품, 수산물, 공예품 등 총 6개 부문에 걸쳐 각 지역별 420여개 후보상품을 대상으로 제품성, 차별성, 지역경제기여도, 디자인 등을 심사해 우수특산품 57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 측은 소비자들의 웰빙 및 로하스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상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1차 농수산품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디자인 제품들이 눈에 띠었다고 평가했다.

수상한 특산품은 9월 한국일보사와 정부 9개 부처가 함께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전시회에서 내고장 자랑관, 맛 자랑 품물장터와 더불어 각 지역 우수 특산품관을 구성하여 전시될 예정으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6 대한민국 우수특산품 大賞]

'프로폴리스' 국산 프로폴리스 첫 생산 쾌거

■ 위델스프로폴리스 - 프로폴리스

위델스프로폴리스는 위드(with)와 헬스(health)의 합성어로 "건강을 프로폴리스와 함께"라는 의미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국산 프로폴리스의 자존심을 걸고 품질개발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다.

위델스프로폴리스는 오랜 양봉업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기술 진흥청 중앙심의회에서 선정하는 벤처농업 시범농가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벤처자금을 지원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



작하게 된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국산 프로폴리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 동안 인간의 질병 치료를 위해 쓰여지는 프로폴리스를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위텔스프로폴리스는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원료를 이용해 국내양봉농가의 소득증진 및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경상대 응용화학 식품공학부 심기환 교수팀에 의뢰, 본격적인 연구를 마치고 다양한 응용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055)943-7555

- 2006. 8. 30 / 한국일보 -

창원시, 꿀벌 로얄제리 다수확 평가회 개최

창원시는 양봉농가에 꿀벌개량과 새 양봉기술을 보급해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일 오전 11시 팔용산 양봉원(대표 송병권)에서 '꿀벌 로얄제리 다수확 평가회'를 가졌다.

평가회에는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 40명과 정경태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개량종의 로얄제리 생산량을 평가하고 채취과정을 시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연을 한 개량종은 이탈리아종과 코카시안종 등 5품종을 팔용산 양봉원에서 10여년간 교잡 육성한 꿀벌로서, 일반종이 1회 50~60개의 로얄제리 왕관을 채취하는데 비해 개량종은 1회 100~150개의 왕관을 채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꿀벌통 100개를 기준으로 일반농가가 벌꿀 3,000만원, 로얄제리 1,200만원 등 4,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비해 개량종 시연농가는 벌꿀 4,000만원, 로얄제리 3,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번 꿀벌 개량으로 시는 품종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우수 품종을 보급하게 됐으며, 양봉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2006. 9. 20 / 연합뉴스 -